

## 17~18세기 우리 말 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에 대하여

최 승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산물이며 사회생활의 반영인 언어는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고 풍부해진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19페이지)

민족어발전력사연구에서 어휘구성과 함께 문법구조의 변화발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어휘와 함께 문법이 언어연구에서 중요한 2대구성부분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특히 토는 문법구조에서 핵심적요소로서 그에 대한 연구는 문법구조전반에 대한 이해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

지난 시기 시기별로 따르는 토들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17~18세기 우리 말 토에 대한 연구성과는 얼마 많지 못하다.

력사적으로 17~18세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중세 후반기에 속하는것만큼 이 시기의 우리 말 력사에서는 근대적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토들의 쓰임과 그 특성을 밝히는것은 민족어발전력사를 해명하는데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17~18세기 조선어의 격토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국문문헌들의 격토에 대한 연구성과와 현대조선어격토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다 원만히 이어주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격토는 체언에 붙어서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맺는 결합관계를 대상성있게 위치지어 주는 토로서 토들의 쓰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토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말에는 주격, 대격, 속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의 발전된 8개의 격체계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우리 말의 격체계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조선어의 력사적발전과정과 함께 오랜 기간 언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인식과 활용이 보다 넓어지고 적극화됨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다.

무엇보다먼저 17~18세기의 우리 말 주격토 《이, ㅣ, 히, 가》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주격토 《이/히》는 15~16세기 초기국문문헌들은 물론 17~18세기의 국문문헌들에도 적지 않게 쓰이였다.

- 이놈<sup>이</sup> 톱질을 <sup>히</sup>다가(배비장전)
- 도련님<sup>이</sup> 광한루의 오셨다가(춘향전)
- 길동<sup>이</sup> 점점 자라(홍길동전)
- 오곡<sup>이</sup> 나온다(홍부전)
- 갈 길<sup>히</sup> 머도 멀샤(송강가사)
- 古<sup>이</sup> 不<sup>히</sup> 足<sup>히</sup> 거든(로계집)

- 압뵈히 지나가고(고산유고)
- 나라히 이시니(홍길동전)

주격토 《이》는 닫긴소리마디로 끝나는 말줄기뒤에 쓰이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16세기초의 《박통사》(상)에 주격토 《히》가 35회, 17세기 중엽의 《박통사언해》(상)에서는 14회 쓰이었는데 《박통사》(상)의 주격토 《히》는 대부분이 《박통사언해》(상)에서는 주격토 《이》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초의 《로결대》와 17세기 중엽의 《로결대언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격토 《히》보다 《이》가 이 시기에 쓰임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주격토 《히》와 《이》는 같은 문법적의미를 나타냈으나 그 쓰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17~18세기 책들에는 주격토로 《ㅣ》가 쓰이었는데 《ㅣ》는 《·, ㅏ, ㅑ, ㅓ, ㅕ》와 같은 모음들의 뒤에 쓰이었다.

주격토 《ㅣ》가 쓰인것은 그것이 주격뿐아니라 속격, 여격토로도 쓰인 사정 즉 토의 미분화상태와 관련된다고 본다. 그리고 일부 겹모음들이 홀모음으로 되면서부터 이러한 모음뒤에도 쓰이게 되었다고 본다.

주격토 《가》는 《ㅣ》로 끝나는 겹모음뒤에 쓰이었다. 17세기에 《ㄱ, ㅋ, ㆁ, ㄷ, ㅌ》 등은 겹모음으로 존재하였기때문에 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주격토가 따로 붙지 않아도 주격형태를 이룰수 있었다. 여기에 《가》가 더 쓰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동북방언에서 《집이가 있다. 사람이가 온다. 책이가 많다》 등에서처럼 명사주격형태에 《가》를 덧붙이는것이나 같다고 할수 있다.

《ㄱ, ㅋ, ㆁ, ㄷ, ㅌ》 등의 겹모음들이 홀모음으로 쓰이면서 《가》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뒤에도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주격토 《ㅣ》가 점차 쓰이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대신하여 쓰이게 되었다.

18세기에는 1인칭과 2인칭의 주격형태인 《내가, 네가》가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중세조선어의 주격형태인 《내, 네》에 《가》가 쓰인것이다.

- 춘향이가 처음에(《춘향전》 하, 19)
- 丈夫ㅣ가 (《린어대방》 2, 9)

주격토 《가》는 처음에 《이가》, 《ㅣ가》형으로 부분적으로 쓰이다가 일부 모음뒤에서도 쓰이면서 《가/이》가 혼용되었으며 다음에는 《이가, ㅣ가》로 겹쳐쓰이면서 점차 주격토 《ㅣ》가 쓰이지 않게 되었다. 1883년의 《화음계몽언해》에는 《ㅣ》가 대부분이 《가》로 바뀌었으며 1896년의 《독립신문》에서는 《ㅣ》가 쓰이지 않고 《가》만 쓰이었다.

주격토 《가》는 《이》보다 훨씬 후에 생겨난 토이다. 주격토 《가》가 16세기 중엽에 처음 나왔다는 견해도 있으나 《로결대》, 《박통사》와 《로결대언해》, 《박통사언해》를 비교하면 《가》가 16세기초부터 책들에 쓰인것을 볼수 있다. 이때의 《가》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였지만 주격토의 기능도 일정하게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 네가 주인드러 여러 뜻과 지쥬 달라햐 (《로결대》 상, 69)
- 네가 主人드러 여러 뜻과 지쥬를 달라햐 (《로결대언해》 상, 123)
- 빙가 세니러셔(정철의 어머니 편지)

- 늬가 제 어민줄 모르더라(《오륜행실도》 2, 27)

18세기이후에 주격토 《|》는 완전히 쓰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18세기에는 주격토 《가》에 의하여 《|》가 밀려났기때문이다.

17~18세기는 주격토 《가》가 모든 모음뒤에 쓰이면서 주격토 《|》와 혼용되던 시기이다.

현대조선어의 주격토 《꺼서》는 《사씨남정기》, 《춘향전》 등에 《쎄오셔, 썩셔, 겨오셔, 쎄셔》로 많이 쓰이였다.

- 부인쎄오셔 부인을 명쇼히시느이다(사씨남정기)
- 부인썩셔 툇기 계시다 히느이다(사씨남정기)
- 선인겨오셔 경계히오시딕(한중록)
- 서방임쎄셔도 월로의 평안이 형츠히시닛가(춘향전)

주격토 《쎄오셔, 썩셔, 겨오셔, 쎄셔》의 특성은 현대조선어의 주격토 《꺼서》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대상에 쓰인것이며 현대와 같이 단순화되지 못한것이다.

다음으로 대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 우리 말 대격토 《을》은 《을》, 《를》은 《를》과 쌍을 이루고 존재하였으며 결합모음 《ㅎ》이 결합된 《흘》, 《홀》도 쓰이였다. 그리고 《를》이 《르》형태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입말에서 쓰이였다.

《박통사》, 《로결대》와 《박통사언해》, 《로결대언해》를 비교분석한데 의하면 우선 《로결대언해》(상, 하)와 《박통사언해》(상)에는 대격토중에서 《을》과 《를》이 가장 많이 쓰이고 《흘》, 《홀》은 그보다 훨씬 적게 쓰이였다. 그것은 《흘, 홀》이 《르》로 끝난 명사나 수사, 복수로뒤와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쓰인 사정과 관련되기때문이었다.

- 네 길흘 뵈워히고(《로결대언해》 상, 67)
- 하나홀 두어 방보게 히라(《로결대언해》 상, 60)
- 다른디 드논 작도 히나홀 비러오라 (《로결대언해》 상, 33)

대격토는 《으, 으》와 《르》이 결합되어 《을, 을, 를, 를》이 형성되어 열린소리마디 다음에는 《를, 를》이, 닫힌소리마디 다음에는 《을, 을》이 쓰이는것이 기본이었으나 이러한 규칙에 구애됨이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 빅년를 동사허련이와(《남훈태평가》 9)
- 논를 풀지(《남훈태평가》 1)

17~18세기 대격토의 쓰임에서는 일정한 특징들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대격토들이 현대 우리 말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이다.

례를 들어 《이런 활을 네 다흙 므서슬 나므라써논다》(《로결대언해》 하, 28)에서 대격토는 반복되어 쓰이였다.

둘째로, 《주다》, 《묻다》, 《순종하다》 등과 같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간접객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 날을 못지 마라(《청구영언》 128)
- 지아비를 순종히야(《경민편언해》 부처)

셋째로, 대격토들은 《더브러, 흙썩, 인히여, 드려》 등의 단어들과 결합하여 포함되는 대상을 나타내는것이다.

- 한왕을 더브러(《장자방전》 2, 19)
- 벗이 놀 흠씩 오마더니(《청구영언》 397)

이외에도 대격토는 시킴형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며 간접객체를 나타내는 특성도 있었다.

- 내 었디 너를 머물워 재리오(《로결대언해》 상, 89)
- 우리를 흐룻밤 재게 흠이 었디흐뇨(《로결대언해》 상, 85)
- 벗이 놀 흠씩 오마더니(《청구영언》 397)

실례들에서 《너를》의 대격토 《를》은 자는 행동의 간접객체를, 《우리를》의 대격토 《를》은 하는 행동의 간접객체를, 《놀》의 대격토 《을》은 오는 행동의 간접객체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속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에 쓰인 속격토로는 《의/인, 희/히》가 있었으며 이밖에 속격토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ㅅ》이 있었다.

중세조선어에서 속격토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인》과 쌍을 이루고 존재하였다.

속격토 《인》은 모음조화의 파괴와 《·》의 소멸로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다. 결과 《의》만이 남아 속격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현재까지 쓰이고있다.

속격토 《의/인》은 17세기 중엽이전에는 주로 활동체명사들에서만 그 문법적의미를 나타내었다. 비활동체명사들에서는 속격의 문법적의미가 여위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애, 에, 예》와 여기에 《ㅅ》이 첨가된 형태에 의하여 표현되었다.

17세기이후에도 《의》는 속격토나 여격토, 위격토와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현상도 일부 있었다.

- 거문 쿡은 언머의 혼말이며 딥픈 언머의 혼 못고(《로결대언해》 상, 32)
- 네의 집의 갈거시니(《춘향전》 상, 14)
- 고향의 도라가(《장자방전》 2, 18)

이것은 속격과 여격, 위격이 17~18세기에도 미분화상태로 일정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17~18세기에 속격토 《의/인》가 대부분 많이 쓰이었는데 《히, 희》도 일부 쓰인것을 볼 수 있다.

- 집뒤히 무리양이 낫낫치 소리긴거시여(《박통사언해》 상, 78)
- 二十里싸히 다드라(《로결대언해》 상, 53)
- 길히 사롭 곱티(《청구영언》 403)
- 혼발우희 三壯식 쓰되(《박통사언해》 상, 74)
- 담우희 혼덩이 흠이(《박통사언해》 상, 77)

16세기와 17세기 문헌들을 비교해보면 16세기에 주격의 의미를 표현하던 《히》가 17세기에 《의》로 쓰인것이 있다.

- 관원들히 밍근 도흔 수울(《박통사》 상, 4)
- 官人들의 비즌 도흔 술을(《박통사언해》 상, 8)

실례에서 《박통사》의 《관원들히》의 《히》는 《밍근》과 관계되기때문에 주격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수 있으며 《박통사언해》의 《官人들의》의 《의》는 《술》과 관계되기때문에 속격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같은 문장에서도 의미적련관관계로 하여 바뀌어 쓰였다.

여격형태가 속격형태로 바뀌어 쓰인것이 있다.

- 시천리 싸해 테가석드리나 묵노라 햅야(《박통사》 상, 106~107)
- 二千里싸헨 더기가 석돌을 머물면(《박통사언해》 상, 100)

실례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해/히》는 일정하게 두 시기 문헌들에 바뀌어 쓰이였다. 그중에서 속격형태가 여격형태로 바뀐것과 여격형태가 속격형태로 바뀐것이 가장 많다.

그밖에 주격형태가 속격형태로 바뀌어 쓰이거나 속격형태가 변화없이 그대로 속격형태로 쓰인것은 많지 않다.

17~18세기에 속격토의 기능을 수행하는 《ㅅ》이 쓰이였다.

《ㅅ》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속격토처럼 일정한 대상의 특성을 규정하는 문법적기능도 있었다.

《ㅅ》은 체언형에 쓰이였다.

례를 들어 《햅룻밤 다섯》(《청구영언》 57), 《어디셔 망년엿 거슨 오라 말라》(《청구영언》 311)의 《햅룻밤》, 《망년엿》의 《ㅅ》은 《밤, 거슨》에 대한 규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ㅅ》이 체언과 체언이 결합되는 사이에 쓰이면 속격토 《의》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여격토에 첨가되면 여격토와 함께 《에 있는》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ㅅ》은 체언과 체언이 결합될 때 그사이에서, 속격토에 첨가되었을 때, 여격토를 비롯한 다른 격토에 첨가되었을 때, 맺음토나 이음토, 도움토에 첨가되었을 때 속격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중엽에 와서는 훨씬 줄어들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17~18세기에 쓰인 속격토의 특징은 첫째로, 속격토 《의/이》가 주격, 대격, 여격의 기능과 비슷하게 쓰이면서 행동의 주체, 직접객체, 간접객체(장소, 시간, 수단 등)를 나타내는 것이다.

례를 들어 《더의 머글 밥을 또 엇디햅료》(《로결대언해》 상, 75)에서 《더의》는 《제가》의 뜻으로써 행동의 주체를 나타낸다.

다른 실례로 《님금의 위홈이니》(《삼역총해》 2, 6), 《집의 와 밥 머기 못고》(《로결대언해》 상, 4)에서 《님금의》의 《의》는 《을》, 《집의》의 《의》는 《에》와 같은 대상,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속격토의 분화과정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둘째로,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줄기에 융합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고기, 나모》가 《고기, 남기》로, 《어미》는 《어미》로 단어의 줄기와 《의/이》가 결합되면서 모음중복을 피하여 융합되는 형식으로 쓰이였다.

다음으로 여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의 여격토에는 우선 《애, 예, 예》가 있었다.

《애, 예, 예》는 기본적으로 비활동체명사에 쓰이였다.

- 거리애 遊蕩티 말고(《박통사언해》 상, 94)
- 환난애 서르 구햅며(《경민편언해》 25)
- 萬里애 일홈을 던코져 흠이라(《로결대언해》 상, 79)

《로결대》(상), 《박통사》(상)와 《로결대언해》(상), 《박통사언해》(상)에 쓰인 이 토들의 회

수를 보면 《애》는 89:28, 《예》는 49:22로서 16세기의 책들에 비하여 17세기 중엽의 책들에 훨씬 적게 쓰이었다.

반면에 《예》는 《로결대》(상), 《박통사》(상)에 134회 쓰이고 《로결대언해》(상), 《박통사언해》(상)에는 280회로 16세기초보다 146회 더 많이 쓰이었다. 그것은 《애》, 《예》 등이 《예》로 바뀌어 쓰인것과 많이 관련된다. 이것은 16세기까지만 하여도 여위격의 의미를 나타내던 여격토들이 17세기 중엽에 와서는 여격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여격토 《애, 예》는 17~18세기이후에 쓰임에서 《예》 하나로 단일화되었다.

17~18세기의 여격토에는 또한 《해, 헤, 희》가 있었다.

《해, 헤, 희》는 모음 다음에 쓰이는 특성을 가지고있었다.

17~18세기의 여격토에는 또한 《의게/인게, 기, 게》가 있었다.

《의게/인게》의 쓰임에서의 특징은 모음조화현상에 따라 쓰이면서 《기, 게》와 마찬가지로 활동체명사에 쓰인것이다.

- 이<sup>은</sup> 少人의 어미동성<sup>의</sup>게 난 아이오(《로결대언해》 상, 28)
- 하날<sup>기</sup> 부쳐두고(《로계집》 루항사)
- 그저 내<sup>게</sup> 本錢만 갑고(《박통사언해》 상, 66)
- 네<sup>게</sup> 풀리라(《박통사언해》 상, 133)

17~18세기의 여격토에는 또한 《씩, 켜》가 있었다.

《씩》, 《켄》은 《게/기》와는 달리 사람이나 인격화된 대상에 쓰이어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격토였다.

이 시기의 일부 문헌들을 분석한데 의하면 이 문헌들에 《켄》은 쓰이지 않고 《씩》만 쓰이었다.

《씩》은 17~18세기에도 다 존경하는 대상에 쓰이었는데 이전시기의 문헌들에 비해 적게 쓰이었다.

- 스승님<sup>씩</sup> 읍<sup>고</sup> 글 바린 후에(《박통사언해》 상, 93)

《씩》은 말줄기가 열린소리마디나 닫긴소리마디에는 관계없이 존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어디에나 쓰일수 있다.

이 토들은 표기형식에서 우리 글자로 기록된 어휘에 한하여서는 《아드넉기》처럼 쓰고 한자의 경우에는 《夫人씩, 如來人켄》처럼 썼다.

《씩, 켄》은 후에 《게》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 시기 여격토의 쓰임의 특성은 여격토로서의 문법적의미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면서 그 기능이 훨씬 넓어진것이며 일부 단어들에 붙어서 속격토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것이다.

다음으로 위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 조선어의 위격토에는 《애서/에서, 예서, 셔》, 《해서/헤서》, 《인서/의서》, 《히서/희서》, 《인게서/의게서》, 《기서/게서》가 있었다.

위격토 《애서/에서, 예서, 셔》, 《해서/헤서》, 《인서/의서》, 《히서/희서》는 비활동체에 쓰이고 활동체명사에는 《인게서/의게서》, 《기서/게서》, 《씩서/켄서》가 쓰이었는데 《씩서》, 《켄서》는 높임의 뜻을 나타냈다. 높임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인게서/의게서》는 말줄기가 자

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쓰이고 《괴서/계서》는 말줄기가 모음이거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 쓰이었다.

여기에서 위격토의 기본형태는 《에서》와 《의계서》였다.

《박통사언해》(상), 《로결대언해》(상)에는 《애서, 에서, 예서, 셔》도 쓰이었지만 앞시기보다 《에》가 많이 쓰이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애서》는 17세기 중엽에 그 이전시기에 비해 절반정도 적게 쓰이었다.

위격토 《의서/의셔》는 17~18세기에 많이 쓰이었다.

《로결대》(상), 《박통사》(상)에 쓰인 《의서, 의셔》가 17세기 중엽의 《로결대언해》(상), 《박통사언해》(상)에 《의이서》, 《의이셔》로 쓰인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의서/의셔》가 《의+이서→의셔, 의+이셔→의셔》로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될수 있다.

17~18세기에 결합자음 《ㅎ》이 결합된 형태들인 《해셔/헤셔》, 《히셔/희셔》도 쓰이었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박통사》, 《로결대》에 쓰인 《해셔》는 《로결대언해》, 《박통사언해》에서 《해셔/히셔, 에셔》로 쓰이고 《희셔》는 《에셔》로 교체되어 쓰이었다.

이것은 16세기의 《해셔》가 점차 《에셔》의 방향으로 변해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로결대언해》와 《박통사언해》에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위격토 《씩셔/췌셔》가 쓰인 실례가 없다. 다른 문헌들에 부분적으로 쓰이는것으로 보아서는 이 시기에 아직 《씩셔/췌셔》가 활발히 쓰이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 부인씩셔 텃기 계시다 ㅎ느이다(사씨남정기)
- 로야씩셔 홀로 린<sup>ㄹ</sup>만 안아(사씨남정기)
- 서방임췌셔도 월로의 평안이 ㅎ츄<sup>ㅈ</sup> ㅎ시닛가(춘향전)

다음으로 조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 조선어의 조격토에는 《로/으로/으로》, 《로셔/으로셔/으로셔》, 《로써/으로써/으로써》, 《호로/호로》, 《호로셔/호로셔》가 있었다.

17~18세기 조선어 조격토의 기본형태는 《로/으로/으로》였다.

조격토 《로/로셔, 로써》는 모음이거나 울림소리 《ㄹ》로 끝나는 말줄기에 쓰이고 《으로/으로, 으로셔/으로셔》는 닫힌소리마디로 끝나는 말줄기에 쓰이었다.

이 토들은 17~18세기에 행동의 방향이나 수단의 뜻을 나타내는 조격토로 활발히 쓰이었다.

결합자음 《ㅎ》이 결합된 《호로》, 《호로셔》도 이 시기에 쓰이었으나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

- 우호로 향<sup>ㅎ</sup>야(《가례언해》 1, 38)
- 고려<sup>ㅈ</sup> 호로셔 온(《박통사언해》 상, 65)
- 호로셔 온거시로다(《박통사언해》 상, 131)

특히 《로써》형의 토에 《ㅎ》이 끼인 《호로써/호로써》는 쓰인것이 보이지 않는다. 결합자음 《ㅎ》이 결합된 조격토는 17세기 중엽의 책들에는 《호로, 호로셔》가 쓰이었다.

- 우호로 (《로결대》 상, 10)→우호로(《로결대언해》 상, 18)
- 호로셔 (《로결대》 상, 51)→호로셔(《로결대언해》 상, 91)

이 시기에 조격토의 결합적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격토에 《브터》와 결합하여 행동이나 시간의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것이다.

- 네 어드러로써브터 온다(행동의 출발점)(《로결대언해》 상, 1)

조격토에 다시 도움토 《브터》가 덧붙여 쓰이는 경우도 점차 많아졌다.

《브터》가 조격토뒤에 결합되어 쓰인것은 《로결대》, 《박통사》에도 일부 찾아볼수 있다.

- 네 어드러로써브터 온다(《로결대》 상, 1)
- 내 高麗王京으로써브터 오라(《로결대언해》 상, 1)

또한 조격토 《로/으로》 다음에 《조차》, 《말미암아》, 《더브러》 등이 결합되어 문법적의미를 보충적으로 더 나타낸것이다.

- 玉泉으로 조차 흘러 나리니(《박통사언해》 상, 123)
- 일로 말미암아(《태상감응편도설언해》 5, 9)

또한 조격토 《로》는 《혀》와 결합하여 쓰인것이다.

- 글월을 놀로 혀 쓰이로(《로결대언해》 하, 154)
- 우리 벗등에 혼나호로 혀 손조 고기 붓게 혀자(《로결대언해》 상, 37)

또한 조격토 《로》뒤에 도움토 《는》 또는 《오》가 결합되어 쓰인것이다.

- 당시론 밥이 이시니(《로결대언해》 상, 75)
- 당시론 十里싸히 이시니(《로결대언해》 상, 82)

다음으로 구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 조선어에 구격토로는 《와/파》가 쓰이였다.

16세기까지는 《ㅎ+파→ 파》로 이루어진 구격토 《파》가 비교적 많이 쓰이였는데 17세기에 와서는 《파》가 《과》나 다른 토로 교체되어 쓰인것이 적지 않다.

- 비단 혼자과 석자반(《박통사》 상, 94)
- 비단 혼자과 석자반(《박통사언해》 상, 89~90)
- 허근 아히들과 아랫사롭(《박통사》 상, 101)
- 저근 아히들로 애서 下人들에 나르리(《박통사언해》 상, 95)

구격토 《과》는 기본적으로 닫긴소리마디 다음에 쓰이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열린소리마디 다음에도 쓰이였다.

- 열필 흰 모시비과 닻필 누론 모시비과 닻필거믄 털릭 비를(《박통사언해》 상, 95)
- 비단 혼자과 석자반 제물엿 김이야(《박통사언해》 상, 89~90)

이러한 현상이 《로결대언해》, 《박통사언해》에 몇개밖에 없는것으로 보아 말줄기가 열린소리마디로 끝나는가 닫긴소리마디로 끝나는가에 따르는 사용규범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례를 들어 《너브신 복이 하늘와 ㄱ라샤》(《박통사》 상, 1)와 《큰 福이 하늘과 ㄱ즉혀야》(《박통사언해》 상, 5), 《물머깊 솟와 콩》(《박통사》 상, 131)과 《물먹일 덩과 콩》(《박통사언해》 상, 119)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자음 《ㄱ》아래에서 《박통사》(상)에서는 구격토 《과》가 아니라 구격토 《와》가 쓰이고있다.

이 시기의 구격토의 쓰임에서는 일련의 특성이 있었다.

우선 16세기까지는 《ㅎ+파→ 파》로 이루어진 구격토 《파》가 비교적 많이 쓰이였으나 17세기에 와서는 《파》가 《과》로 교체되어 쓰인것이다.



또한 구격토 《과》는 기본적으로 닫긴소리마디 다음에 쓰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열린소리마디 다음에도 쓰인것이다.

- 흰 모시뵈과 닛필 누론 모시뵈(《박통사언해》 상, 95)
- 비단 흔자과 석자반 제물(《박통사언해》 상, 89~90)

다음으로 호격토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보자.

17~18세기의 호격토에는 《아, 야, 여, |아, |야, 하》가 있었다.

우선 17~18세기에 호격토 《아》는 닫긴소리마디뒤에 쓰이었다. 이 시기 호격토 《아》는 닫긴소리마디뒤에 쓰이었다. 17~18세기이전에 쓰인 호격토 《하》도 대부분 호격토 《아》로 바뀌어 쓰이었다.

- 쥬신한 다론티 드논 작도 흔나 비리오고려(《로결대》 상, 19)
- 쥬인안 다론티 드논 작도 흔나홀 비리오라(《로결대언해》 상, 34)
- 相公안 王五 | 왓<sup>느</sup>이다(《박통사언해》 상, 108)
- 王가 |안 오라(《박통사언해》 상, 108)

원래 호격토 《아》는 닫긴소리마디뒤와 열린소리마디뒤에 다 쓰이다가 17~18세기부터는 《아》가 닫긴소리마디뒤에 쓰이고 《야》는 열린소리마디뒤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호격토 《야》는 열린소리마디뒤에서 쓰이었다.

- 술 폴리안 와 돈 헤라(《로결대언해》 상, 115)
- 오라 아으야(《박통사언해》 상, 49)
- 형아 아익안(《경민편언해》 38)

호격토 《여/이여》중에서 《여》는 열린소리마디뒤에, 《이여》는 닫긴소리마디뒤에 쓰이었다. 호격토 《아, |아, 야, |야》에 비하여 보다 정중한 뜻빛갈을 나타내었다.

- 슬프다 셋<sup>년</sup>빅성이여(《경민편언해》 45)
- 거문고여 그러면 쳐보세(배비장전)

결합자음 《ㅎ》이 쓰인 호격토 《하》는 본래 높임의 뜻빛갈을 가지고 쓰이다가 점차 그 쓰임이 소극화되어 17세기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았다.

- 얼우신한 허믈마쇼셔(《박통사》 상, 116)
- 大畬 |안 허믈말라(《박통사언해》 상, 107)
- 쥬신희님한 쇼인이 또 흔 마리 이시니(《로결대》 상, 52)
- 쥬인형안 少人이 또 흔 말이 이시니(《로결대언해》 상, 93)

호격토 《하》는 《박통사》(상), 《로결대》(상)에는 모두 22회 쓰이었는데 《박통사언해》(상), 《로결대언해》(상)에는 하나도 쓰이지 않고 일부 다른 책들에서 관습적으로 쓰이었다.

이 시기의 호격토의 쓰임에서는 일련의 특성이 있었다.

우선 17~18세기이전에 쓰인 호격토 《하》가 대부분 호격토 《아》로 바뀌어 쓰인것이다.

또한 결합자음 《ㅎ》이 쓰인 호격토 《하》가 17세기이전에 높임의 뜻빛갈을 가지고 쓰이다가 점차 그 쓰임이 소극화되어 17세기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은것이다.

우리는 우리 말에 많이 쓰이는 격토에 대한 력사적연구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조선어력사연구성과를 더욱 풍부히 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